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홍해작전

마감뉴스

오늘 승전감사예배로 작전 종료 선언

제2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이었던 지난 6월 17일 비상새벽기도회 때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홍해작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며 홍해를 건넌 후 처음으로 드리는 이 성찬식은 충현의 9천여 명이 참여하여 분당은 물론 갈릴리홀까지 메운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천국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성찬에 임했다.

한편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 때는 지난 6월 6일부터 시작한 제3차 홍해작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6월 17일 비상새벽기도회 때 성찬식에서 배찬을 받는 성도들
홍해를 건넌 후 가진 첫번째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국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승전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서는 지난 15일간의 홍해작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예배때는, 홍해작전을 마친

면서 우리 교회 당회가 가결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절제와 봉사생활을 제안하는 호소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충현교회 성도들이

정부와 국민 앞에 드리는 호소문

오늘날 우리 민족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안타까워하면서 충현교회의 성도들은 그 일단의 책임을 뼈아프게 통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 비상기도회인 제3차 홍해작전을 지난 6월 6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개인의 회개와 교회의 갱신과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천국시민으로서의 향도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물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리의 말씀대로 경건과 절제, 봉사하는 삶을 실천수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홍해작전 운동이 일천만 기독교인들은 물론 국민 전체의 호응을 얻어 각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추진을 통하여 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1. 우리는 바른 사회, 밝은 가정, 깨끗한 마음을 지해하는 바인 간직, 비윤리적인 그릇된 가치관의 수정을 호소한다.
1. 우리는 전통문화라는 미명 하에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미신 행위를 추방한다.
1. 우리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법과 질서 의식이 회복되도록 협력한다.
1. 우리는 가정 파괴 행위 및 사회 폭력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치안 대책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학원의 안정과 노사화합을 위한 관계당국의 민주적인 노력을 격려한다.
1. 우리는 소외된 자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구체화된 복지정책의 실현을 호소한다.
1. 우리는 퇴폐 향락업소에 대한 철저한 행정단속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무분별한 도색개채와 마약류의 유통을 배격한다.
1. 우리는 사치성 물품의 사용과 과다 수입을 억제한다.
1. 우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책이 추진되도록 솔선 협력한다.

승전기념 돌성경 봉헌 및 사랑의 집 기공예배 드려

7월 15일에 사랑의 집 건축 헌금



홍해작전 승전기념 돌성경이 제막되는 순간

제3차 홍해작전 비상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분당 앞뜰에서 홍해작전 승전 기념 돌성경 봉헌식이 있었다.

이 돌성경의 오른쪽에는 십계명이, 왼쪽에는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충현교회를 끌고 가는 두 개의 패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권사회의 후원으로 제단 4월 말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이날 새벽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다.

이 돌성경은 무게가 22톤, 가로가 4미터, 세로가 2.6미터, 두께가 1미터로 재질은 화강암(가평석)으로 되어 있다.

제작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하기 힘든 한 쪽재리와 강암을 채석할 수 있었고, 돌 문반재 따르는 위험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돌성경을 올려 놓는 좌대의 받침대 공사를 할 때는 내리던 비가 멈춰 마무리 공사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이중윤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남녀교역자, 장로, 권사들이 돌성경을 제막하는 순간 성도들은 백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같은 날 낮 12시 30분에는 뱃배게광장에서 충현의 성도와 내면이 잠식한 가운데 사랑의 집 건축기공예배를 드렸다.

이중윤 위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잊혀지기 쉬운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의 집을 통해 충현교회가 구제의 사명을 다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헌토식에서 건축위원회 세기인 박철훈 장로가



사랑의 집 건축기공예배에서 헌토하는 이중윤 위임목사 내외, 내면, 장로들

건축준비경과를 보고하였고, 횃튼대학 총장인 라차드 체이스 박사가, 참석한 내면을 대표하여 축사를 한 후 위임목사 내외와 위원장, 남녀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회 및 남녀전도회 임원들이 헌토하였다.

사랑의 집은 건축면적 1,086평, 매지면적 362평 위에 지하 4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된다. 91년 9월에 완공이 되면, 사랑의 집은 무료진료소, 상담실, 경로대학, 유아원, 유치원, 결혼·장례식장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오는 7월 15일 I, II, III, IV부 예배시에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한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하였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대민봉사의 장이 될 이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건축헌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눔의 센터 은혜 중에 마쳐



성도들은 나눔의 센터를 통해 사랑과 질서의 생활을 실천하였다

이번 홍해작전의 사랑 실천운동의 하나였던 나눔의 센터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소식관에서 개장되었다.

성도들의 교구별로 접수한 물품 중 장난감과 학용품은 모두 출고되었으며 남은 의류는 목회자 세미나를 수강하는 교역자들에게 나누어질 예정이다.



제3차 흥해작전

이 종 윤 목사

아홉째날 천국시민의 경건생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시니라...”(마6:1-6)
마태복음 5장 16절과 6장 1절에 나오

는 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의는 원수에 대하여는 사랑을 베풀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장 1절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께는 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제를 하며 나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시민의 의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말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 있는데 땅에 쌓아놓는 보물도 안전성이 없고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안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경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땅에 두지 않기 위해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는 빛 속에서 걷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눈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고상하고 단순한 몸과 마음은 사람을 섬기고 우리

건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호간의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가리고 악과 거짓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을 미워하고 외식을 멀리하며 진리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6절 말씀은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들과 야합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말씀을 받고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이 마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판단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시민들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의 들보를 빼내고

비상새벽기도회 설교 요지

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적 헌신이나 경건한 생활을 은밀하게 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행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적인 경건을 기도, 금식, 구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며 금식은 자기 절제, 자기 헌신을 의미하고, 구제란 이웃을 섬기는 삶,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해나갈 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구제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나타내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큰 외식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들에게 생명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생의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마6:21-34)

본문은 섬김의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하나님을, 주중에는 황금을 섬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서는 돈을 섬깁니다. 즉 삶의 반은 하나님을 그 나머지는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시민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섬겨야 합니다.

끝으로 야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 눈이 밝아져 남의 눈의 티를 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시민들은 자기를 돌보아 회개하고 자기 수정을 먼저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로...”(마7:6-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시민들이 자기에게 대해서는 자신을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 즉 신앙, 성찬, 천국을 거저 지도자나 배교자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데 복음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더러운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상과 야합하지 않도록 복

게, 사실은 그렇지 않으나 자기가 가장 많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마6:2).

구제는 하나님만 알도록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천국시민들은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는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시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금식을 함으로써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자기 절제, 자기 부정을 위한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 훈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자기 절제의 모습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행하기 전에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세속적인 야망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염려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의 적은 자들입니다.

천국시민들이 겪는 한 날의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범위내에 속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서는 천국시민이 구해야 할 참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시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시민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마7: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으신 후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긴급성과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도는 지식과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천국시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균형잡힌 인간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열한번째날 완전하고 균형잡힌 천국시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 것이요...”(마7:1-5)

이웃에 대한 천국시민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악에 대한 무조

열둘째날 성찬의 의미

“네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고전 11 : 23~34)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기 전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여 배풀어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으로만 성찬을 거행하거나 포도주로만 성찬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심을 확실하게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랑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이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도덕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성

찬의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을 사람만이 이 성찬에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감사의 예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합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에는 누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선, 부도덕, 부정, 불의와 같은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는 쓴 나물을 모두 먹어야 됩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축복을 힘입어 인생의 고통과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열셋째날 성도의 택할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 : 13, 14)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경우든 선택을 피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국시민 역시 이 선택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시민들은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혼합주의 종교나 편리주의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놓

여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하면서 전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후자는 망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자기 사랑의 길이며 위선의 길이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경계선이 분명한 길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길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쉬운 길로 인도하는 문으로 죄악과 같이 지고가는 짐의 크기와는 상관 없는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우리들이 지고 있는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즉 이 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문입니다.

두 길과 문 앞에서 방향의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시민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지막 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 : 15~20)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을 보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무리들은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지도자, 양의 탈을 쓴 이단자 등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 자신을 선전하여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들은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때를 미리 예견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한 인물이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속마음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

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좋은 말로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속입니다. 따라서 천국시민들은 현실을 사실대로 직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양과 이리를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나무파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 7 : 17). 따라서 우리들은 열매를 보아 거짓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즉 성품과 언행, 교훈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마 7 : 19).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을 들여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봉사



서 동 석 장로

교회학교 교사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고향집으로 내려가는데 교회학교 학생들은 물론 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아쉬워하는 일이 있었다. 교인들이 너무 아쉬워하기 때문에 담당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담당목사인 내가 그만두면 그렇게 울어주겠느냐.”고 하였었다.

그러면서도 담당목사인 그 분도 그를 애석하게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모범교사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

신학교에 재학중인 그 여선생이 작년 말 교회에 자원봉사를 요청하였을 때 전도사 일을 맡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사양하고 평교사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평교사로 임명받은 그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의 구석구석을 닦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릇, 캐비넷, 책상, 걸상, 식탁,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하여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갈아끼우고 칠하고 소독하고 꽃을 꽂고 정리하며 학생들을 동생처럼 사랑하고 웃어른들을 깎듯이 공경하며 말없이 봉사하는 그 모습에 온 교회가 감동을 받았다. 그 동안 이렇게 저렇게로 봉사의 손을 놓았던 온 교인들이 봉사를 것이 무엇이며 왜 기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어 교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적 봉사를 행한 한 여교사의 아름다운 삶이 녹은 성도들의 마음까지 닦아 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보배로운 존재로 직장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만들고 직장 동료, 상사들의 기호는 물론 생일까지 알아 축하하는 그의 부지런함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활기를 찾게 되고 편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됨을 볼 때 그는 한송이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였음을 생각해 한다.

‘장로님, 납입금을 내지 못해 애를 태우는 우리 반 동료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긴급하게 쓰러

고 적금 들어 놓은 것이 생각나서 통장을 점검하니 납입금에는 다 이르지 못하지만 해약을 하여 그 학생의 납입금을 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출석부에 올려줄 수 있을런지요?’ 주경야독을 하는 그가 무슨 큰 잘못을 지은 것처럼 손을 모으고 몸 둘 바를 몰라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 학생의 가혹하고 꾸밈 없는 정성에 나 또한 감동하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박한 것만은 아니요,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행위들이 여기저기 있기에 아직도 우리의 사회는 밝음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개인을 위하여, 인류 사회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주일 중 단 하루저녁이라도, 단 몇시간만이라도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의 한 모퉁이를 쓸고 닦고 머리를 짜내는 개인이나 그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거짓과 꾸밈이 없는 잔잔한 봉사, 향기가 가득한 봉사, 기쁨을 주는 봉사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교회 안팎에 가득할 때 교회는 살아 역사할 것이며 교회와 인류 사회는 희망이 있고 소생케 될 것임을 믿는다.

그 여선생의 빠른 완쾌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음호 세기동은 이세열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청소년 찬양대축제 개최

지난 6월 17일 고등부는 “청소년 찬양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찬양집회를 열었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접, 회개, 기쁨, 감사 등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등부 지도 교역자인 송태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고등부 성



가대의 찬양의 순서도 있었다.

에바다부 성경퀴즈대회

우리 교회 농아 성도들의 모임인 에바다부는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학생반)와 11시(성인반)에 성경퀴즈대회를 열었다.

학생반은 이제까지 배운 공과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성인반은 성경 전반에 걸쳐 퍼즐식 도표를 이용하여 출제되었다.

이 대회에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열띤 경쟁을 벌

초등4부 반별 찬송가부르기대회 가져

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뒀던 성경 지식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초등4부는 지난 6월 17일 반별찬송가대회를 열었다.

310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반에서부터 18반까지는 4층 414호에서, 19반부터 37반까지는 5층 514호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유치부 새친구환영회 열어

유치부는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와 11시에 소석관 205호에서 새친구 환영잔치를 가졌다.

특별 초청 전도 집회의 성격을 띤 이 잔치에서는 새로 나온 32명의 새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교사들이 직접 연극을 공연 하였는데, 어린 회원들에게 전도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뜻깊은

아멘찬양대 성가합창제 참가

우리 교회 아멘찬양대는 한빛 맹아원 후원을 위한 제1회 서울 성가 합창제에 참가하게 된다.

성가 합창제는 오는 7월 2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열리는데 우리 교회 아멘찬양대를 비롯해서 일곱 교회의 찬양대가 참여한다.

나라와 교회 위한 교회연합금식기도회 내일 저녁 6시 우리 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맹술 목사)는 6·25를 맞이하여 6월 25일 저녁 6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교회연합금식기도회를 개최한다.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갈릴리 홀에서 특강이 있는데 임종택

박사(나성 선교교회 장로)가 “한반도 정세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강의하게 되며,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에서는 김계용 목사(나성 영락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루디아전도회 제1지회는 지난 5월 15일 지원교회인 경남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소재 청암제일교회를 방문하였다.

청암제일교회는 하동군에서도 버스편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 오지에 위치해 있었다.

적당하게 언덕진 터 위에 세워진 20여 평의 아담한 교회가 껍인상적이었으며 주위의 우거진 숲과 하얀 건물의 교회 십자가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 지원교회 탐방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최정희 집사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리산 깊은 곳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많은 우상숭배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빛을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계셨으며 축조전도로 신앙의 힘을 돈우고 성도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생활하는 그들이었다.

이 교회의 성도는 장년부가 9명, 유년부가 8명이 전부이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 마을에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

교회를 다시 개척하였다. 심방과 전도시 사용되는 교통 수단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있을 뿐이다.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시고 계신 전도사님 내외분을 보면서 우리들은 뜨거워진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청암제일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주저앉은 파루바다 공사이다. 문 전도사님께서는 공사비 마련도 문제이지만 인부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며 이 문제로 교회가 열심히 기도

중이라고 한다. 기술자 한 사람 만이라도 있다면 여러 사람이 보조하여 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기술자와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루 속히 교회가 건고하고 아름답게 수리되어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연료 구입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이다. 노회에서 매달 나오는 3만원의 보조비가 있지만 부족할 때가 많다고 한다. 우리 전도회에서는 소



정의 연료비와 유년부 학생들의 선물을 준비하였다. 교회에도 쌀을 비롯한 식품, 의류, 소품, 성구류 등을 지원금과 함께 전하여 드렸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하였듯이 갖가지 우상숭배로 가득한 지리산 전지역에 청암제일교회의 성도와 문 전도사님이 하나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한다.

한국장애자협회 주관 장애인 생활수기 공모

한국지체장애자협회는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와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수기를 7월 18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중환의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홍해작전 체험수기 모집

중환지체판국은 이번 제3차 홍해작전을 통하여 체험한 성도들의 신앙간증이나 미담 등을 적은 참가소감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로 홍해작전 기간 중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고배수: 200자 원고지 14매 내외
응모마감: 7월 1일
제출처: 선교관 407호

현대다락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6과 제7계명

성경: 출 20:14

요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전 7:3)

찬송: 187, 349

제70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71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언어와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제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입니다.

설 명

간음이란 기혼한 기혼자들이 자기의 아내 또는 남편 외의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통념이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삶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의 전(고전 6:19)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정조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7계명이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질 문

1. 간음이나 음행한 마음을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골로 3:5)?
2. 간음에 대한 세상 기준과 기독교의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 독신 생활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그 해당자는 누구입니까(고린도전서 7장을 1절부터 24절까지 정독한 후에 얘기해 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1. 가정의 정전과 순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화폐 향락적 사회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